

“錢 NO” 버티는 쏠·盧 ... 국민은 ‘감싸는 새누리’가 더 많다

與野 ‘전두환추징법’ 뜨거운 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가파르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0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데에는 새누리당도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법안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소급 입법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 특

정인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맞서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 환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이자 정의의 실천”이라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간 정부와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與 강은희 대변인 “특정인을 위한 입법 안된다”

野 최재성 의원 “불법재산 환수 與 반대 놀랐다”

임내현 의원 “검찰 TF팀 ‘쇼’ 말고 실질 노력”

“전두환추징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이전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통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에 답하라”고 지적했다.

당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이날 “전두환씨의 추징금 만료 시한이 10월로 다가왔다”며 “이번에 추진하지 못하면 국민은 기존 정당정치와 국가에 대한 불신이 심화할 것이고 국민 통합에 심각하게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두환씨 등 최고의 공직자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감정적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국가와 정당이 살아있음을 입증시키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위 전두환 씨 등 최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응이 놀라웠고 불안스러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나아가 “세계 어디에도 범죄자를, 그것도 최고위층을 지냈던

범죄자를 옹호하는 나라는 더더욱 없다”며 “연좌제라는 것도 도독질을 한 장물을 친척이 가지고 있든, 아들이 가지고 있든 이것을 국가에서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두환씨 추징금 징수 문제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검찰에서 TF까지 구성하여 추진하는 만큼 ‘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검찰이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18 역사왜곡저지대책위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우 비자금 추정 30억 찾았다

운전기사 차명계좌에서 발견·340여㎡ 고급 콘도까지

전두환, 노태우 전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새롭게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측 운전기사 정모씨는 농협,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

관, 9개 계좌에 모두 30억3500만원을 갖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국제청이 지난해 초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 회사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오로라 씨에스(옛 미라빌동)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드러났다.

국제청이 당시 회사에 보낸 차명계

좌 추정 자료를 보면 회사 직원명의로 된 차명의심계좌는 모두 15개(7명), 금액은 38억8500만원이었으며 이중 정씨의 것이 전체 금액의 78%에 달했다.

정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오로라씨에스 소속 직원이었으나 실제로 일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노 전 대통령 집에서 했다고 회사를 밝혔다.

정씨의 당시 연봉은 39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차명통장에 있던 거액은 노 전 대통령측이 물어둔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회사 관계자는 “정씨는 노 전 대통령측 운전기사로 회사 소속이었지만 근무는 하지 않았다”며 “차명통장이 발견되기 전 회사를 떠나 지금은 노 전 대통령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씨 명의의 차명계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정씨 통장에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동치돈이 입금돼 2009년 10월까지 차례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씨는 자금 출처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측 문보 보좌관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오로라씨에스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아들 재현씨와 지난달 이혼이 확정된 전처 신모씨 가족 등 4명은 공동명의로 강원

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의 최고급 콘도인 포레스트 레지던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 등의 콘도는 346㎡ 크기 단독형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에 있으며 통상 20억~30억원선에 거래되는 국내 최고급 휴양시설이다. 전처 신씨의 아버지는 노태우 비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23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어서 신씨 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콘도 구입에 사용됐다면 환수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아들 재현씨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옆에 별채와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전두환 특혜 골프 아시아나CC서 세금만 내고 즐겨 그룹측 “전직 대통령 우대 일반적”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에서 특별회원 자격으로 할값에 골프를 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부부는 경기도 용인 아시아나컨트리클럽 특별회원으로 골프 경비(그린피) 가운데 세 금만 부담하고 골프를 쳐왔다.

그린피 중에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세금 2만원가량만 내는 것이다. 카트요금과 도우

미비용은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전직 대통령 내외와 현직 골프장 사장단에 특별회원 자격을 준다는 아시아나컨트리클럽 내규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골프장의 그린피는 비회원인 주중 18만7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며 회원은 주중 6만7000원, 주말 7만7000원을 낸다.

그룹 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골프장 업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대우한다.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면서 “회원증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나 골프 치러 오면 예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골프장 사장 역시 “골프장이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세금만 받거나 회원 요금 정도만 받는다”면서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관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부패재산 추징”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

5·18 왜곡 저지 준비위 전두환 자택 항의 방문

5월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 역사 왜곡 저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5·18 왜곡 저지 준비위)는 10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항의 방문해 은근재산 반환과 부패재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징을 요구했다.

이들 회원 150명은 이날 전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징,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처 집 일대에 3개 중대 180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전두환이 어

떻게 사는지 보자”며 전 전 대통령 집 앞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가로막히자 ‘입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앞서 이들 단체는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5·18 역사 왜곡 규탄 집회’를 열고 “종편 방송의 도를 넘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편향은 국가분란 행위”라며 “시정 거부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보훈처를 방문,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전두환이 어

61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청소년 해외영어 캠프!!

2013 Summer

24시간 영어로 생활

LEVEL 조별 수업

해외 문화체험

생활안전관리 시스템

수학 선행학습 실시

맛춤 프로그램

필리핀 영어캠프

- 대상 : 초, 중학생
- 기간 : 2013년 7월16일 ~ 8월25일 (6주)
2013년 7월29일 ~ 8월25일 (4주)
- 비용 : 4주 233만원, 6주 350만원 (항공료 65만원예상 별도)
(15세미만 입국비용, 공항세 포함)
- 포함사항 : 수업료, 숙식비, 보험료, 비자연장비, 특별활동 및 관광비, 학습자료비 포함

뉴질랜드 영어캠프

- 대상 : 초, 중학생
- 기간 : 2013년 7월23일 ~ 8월19일 (4주)
- 비용 : 4주 565만원 (항공료 포함)
- 포함사항 : 항공료, 현지보험료, 학교수업료, 홈스테이, TAX, 특별활동 및 관광비, 학습자료비 포함

광주일보 2013 영어캠프

상담문의 T) 062-224-8111 F) 062-226-8111